5강 - 1930~40년대 고전적 할리우드

헐리우드 고전스타일의 완성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과 루즈벨트 대통력의 '뉴딜 정책', 국가 재건의 시기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죠. 공황 이후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건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영화는, 그것이 미국영화의 특색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직접 대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영화가 오락성향이고 현실로부터 도피적이라고 이때부터 평가를 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30년대부터 미국영화에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생략 또는 가장된 형태로 다른 형태로 표현해서 사회적인 갈등 같은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프랭크 카프라,1939) 같은 작품 경우도 1939년에 만들어진 고전적 헐리우드 양식의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고전적 헐리우드 양식이 정착화된 대표적인 영화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코미디 양식을 통해서 미국의 부패한 정치계의 현상을 짚어냅니다. 스미스라는 시골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조리한 정치가들의 부패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하면서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내포하고 암시하는 재미있는 영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영화가 "오락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잘 결합시키는가?"하는 원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1930,40년대 이 시기를 우리가 꼭 짚어야하는 이유는 바로 거대한 스튜디오의 시대이고 고전적 할리우드 양식이 정착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빙 탈버그(Irving Thalberg), 핼 월리스(Hal B. Wallis), 대릴 자눅(Darryl F. Zanuck)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미국영화사에 있어서는 고전적 헐리우드 시대 1930년대 가장 대표적인 제작자들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카데미시상식에는 어빙 탈버그 상(Irving G. Thalberg Memorial Award)이 있어요.

영화 산업적으로 그 당시는 8대 메이저가 장악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독립 제작사들이 반트러스트법에 힘입어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요. 기존의 3대 메이저 영화사에는 유니버설, 콜롬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줄여서 UA라고도 하는데, 이런 3대 메이저에 새로 메이저로 승격된 5대 메이저사들이 합세해서 8대 메이저의 시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5대 메이저로는 MGM, 20세기폭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RKO(Radio-Keith-Orpheu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라진 영화사는 RKO 정도이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독립 제작사들이 그에 못지않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골드윈, 월트디즈니, 리퍼블릭, 모노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사들은 제작 규모에 있어서는 메이저급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 짓는 경계는 무엇이냐면 메이저들은 배급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배급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수직통합, 독점형태이고 반트러스트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작사들은 사실은 배급과 극장상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쥐고고 있는 것이고 다른 독립 제작사들은 그런 배급력, 극장소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군소 영화사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화 생산력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군소 영화사였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영화사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영화사이죠.

메이저들이 수직적으로 제작과 유통을 장악하고, 8대 메이저들이 많은 영화들을 공장에서 통조림깡통 찍어내듯이 대량생산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기가 바로 1930년대입니다.

검열의 변화

이때는 그렇게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검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제작 규정이라고 해서 "프로덕션 코드"가 1930년에 채택이 돼서 1968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검열이죠. 이 제작 규정은 미국 정부가 영화 제작에 있어서 규율에 복종하게 했던 검열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후 완전등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검열은 없어져요. 연방정부에 의한 영화 검열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됐죠. 다른 나라들은 국가에서 검열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했는데 비해, 미국은 당시 처음으로 완전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도입을 했지만, 당시 처음으로 검열이 없는 유일한 나라로 등록하게 됐죠.

이 제작 규정은 1920년대 헤이즈 오피스라는 기관에서 제정을 해서 1930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는데, 좀 다른 말로는 '해서 될 것'과 '해서 안 될 것' 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do and do not 규정'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제작 규정을 항상 지침으로 영화사에 보냅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안 된다"는 지침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전영화를 보면 키스 장면도 잘 안 나와요. 이런 제작 규정에 어긋나는 장면들은 "do not" 조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한 것이죠. 부부가 한 침대에 있는 장면도 잘 나오지 않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검열했던 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 규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카톨릭 예절단'이라고 해서 종교 단체에서의 소송을 거는 경우도 빈번했죠. 이런 압력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화 제작이 실제로 통제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 많이 고심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운드의 도입과 장르의 발전

그리고 이제, 장르적으로 보면 영화에 사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 3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도입과 더불어서 사운드를 활용하는 장르가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운드 활용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장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음악과 춤이 등장하는 뮤지컬이 있고, 갱 영화가 있습니다. 갱 영화는 왜 그럴까요? 총 소리 이런 것들이 참 리얼하죠. 그리고 공포영화, 비명소리라든지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음악이라든지 공포영화는 사운

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장르죠. 그리고 이제 슬랩스틱에서 벗어나서 말재주, 개그로 치닫는 발성 희극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크루볼 코미디 장르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만화영화가 등장합니다. 그림만 보다가 이제 미키마우스가 말을 하고 도널드 덕이 꽥꽥거리는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폭소를 자아내고 만화영화에서도 소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르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뮤지컬"의 경우는 <42번가>, <노다지꾼Gold Diggers>시리즈 이런 영화들이 감독보다도 안무가와 배우의 훌륭한 조화를 통해서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스비 버클리의 뮤지컬은 아주 조형적이고 환상적인 안무를 통해서 뮤지컬 영화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우로는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류의 뮤지컬은 주로 춤의 묘기를 잘 보여줍니다. 탭 댄스가 아주 유명하죠. 이러한 춤과 조형성은 이후에 뮤지컬 장르를 발달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나중에 <빗속에서 노래를 (Singin' In The Rain)>(1952)에 나오는 진 켈리의 춤 안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30년대의 뮤지컬들을 통해서 그 씨앗을 개화시킨 수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갱 영화"는 우리가 세 편의 중요한 작품을 거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시저>(1930), <공공의 적>(1931), <스카페이스>(1932). 이 영화들은 이후에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갱영화의 원형이 되는 영화입니다. 그중에 특히 <스카페이스>는 1980년대 초에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에 의해 다시 <스카페이스>로 리메이크되었죠. 이러한 갱영화의 원형은 전세계 특히 홍콩 느와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공포 영화"는 특히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많이 만들었던 영화 장르인데요. <프랑케쉬타인>, <드라큐라>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발성 영화"는 배우 막스 브라더스(Marx Brothers), 매 웨스트(Mae West), W.C. 필즈(W.C. Fields) 이런 배우들에 의해서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막스 브라더스나 매 웨스트, W.C.필즈 이런 사람들의 영화들은 우리나라에 소개가 덜 되어 있는 관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신없는 대사라던가 또는 슬랩스틱의 우스운 동작들이 잘 조화되어 스크루볼 코미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것은 말로 하는 개그 코미디 플러스 채플린처럼 몸짓 동작의 슬랩스틱을 결합시킨 코미디 양식을 얘기합니다. 이 스크루볼이라는 말은 Screw는 돈다는 것이고 ball,공이 왔다갔다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그런 정신없는, 재치 있는 대사와 웃기는 동작들, 괴짜스러운 재미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말재간, 빠르게 주고받는 대사가 주는 재미가 크다는 의미에서 스크루볼이라고 합니다. 빠르고 재치 있는 대사가 특징이고 내용적으로는 주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뒤바뀐 이성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캐리 그랜트와 캐서린 헵번이 주로 많이 출연을 했고요. 클락 게이블이 나왔던 최초의 스크루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프랭크 카프라,1934)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뭐니 뭐니 해도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가 그 당시를 주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 장편 영화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1937) 입니다. <판타지아>가 194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판타지아> 같은 영화가 사실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적극 활용한, 지금의 뮤직비디오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주요 감독들의 활약

그리고 그 당시의 주요 감독들을 보면요. 조세프 폰 스턴버그라든지, 하워드 혹스, 프랭크 카프라, 존 포드 이런 감독들이 있습니다.

조세프 폰 스턴버그(Josef von Sternberg)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만들었고 독일에서 역시 나치를 피해서 망명해 온 독일표현주의 계열의 감독이죠. 그리고 하워드 혹스Howard Hawks는 <스카페이스> 같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갱스터 영화를 잘 만들었고 또는 서부극도 만들기는 했지만 갱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고, 프랭크 카프라Frank Capra는 <스미스씨 워싱턴 가다>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코미디 영화를 잘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리고 존 포드John Ford 감독은 서부극을 잘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조세프 폰 스턴버그의 대표작으로는 <모로코 Morocco>(1930), <상하이 특급 Shanghai Express>(1932), <진홍의 황후 The Scarle Empress)>(1934) 등이 있습니다. 주로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를 등장시킨 일련의 영화들입니다. 영상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초월적 상상력으로 구축된 멜로드라마를 잘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표현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워드 혹스 감독은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라든지 이성간의 갈등이 본래의 바탕이었는데, 스크루볼 코미디의 대표작인 <아기 기르기Bringing Up Baby>(아이 양육,1938)라든지 갱영화의 대표작 <스카페이스Scarface>(1932) 같은 걸작을 이 시기에 남긴 그런 감독이죠.

프랭크 카프라는 사회적인 코미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Mr. Smith Goes To Washington>(1939)가 있습니다. 당시의 인민주의(Populist Film)영화의 대표작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국책성이 잘 드러난 가족 이데올로기를 코미디라는 장르를 통해서 오락과 이데올로기를 잘 결합시킨 그런 감독입니다.

존 포드는 원래 아일랜드 출신인데 아일랜드인으로서 그런 향수를 갖고 있으면서 서부극의 역사를 쓴 가장 대표적인 장본인 입니다. 비서사적인 서부극을 일종의 위엄과 신화적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 받습니다. 야성을 길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나타나는 대조적인 힘이 영화 속에 드러나죠. <역마차Stagecoach>(1939) 라든지 <젊은 링컨Young Mr.Lincoln>(1939)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알려져 있죠.

1940년대 헐리우드에는 어두운 기운이 주를 이룹니다. 1941년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와 타락, 심리적 이탈과 정신 이상 등에 관한 어두운 멜로드라마인 필름 느와르 장르가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느와르 장르는 기본적으로 2차대전의 환멸로 인해 미스테리와 기억 상실증, 자기 정체성의 파괴, 환멸 등의 어두운 소재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적 수요에 편승하게 되고 필름 느와르 장르 영화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잃어버린 주말The Lost Weekend>(빌리 와일더,1945)에서 알콜 중독자의 공포스러운 심리를 그린다든지, 알프레드 히치콕의 <백색의 공포Spellbound>(1945), <이중 배상Double Indemnity>(빌리 와일더, 1944) 이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입니다.
감독으로는 오토 프레밍거Otto Preminger, 로버트 시오드맥Robert Siodmak, 프릿츠 랑Fritz Lang,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이런 감독들이 당시 인기를 누렸던 느와르 서스펜스의 대가들 입니다. 전후, 2차대전 이후에 대중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에 의해 성공한 장르입니다.

한편으로,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고 바로 그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사회현실에 대한 리얼리즘 영화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다룬 그런 영화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The Best Years Of Our Lives>입니다.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감독의 1946년 영화인데요, 바로 종전 직후 만들어져서 개봉이 된 영화이고.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엘리아 카잔, 1947)이라든가 <벌거벗은 도시The Naked City>(줄스 다신,1948) 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문제 영화' - 'problem film'이라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영화들로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영화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는 세 명의 상이용사가 2차대전이 끝난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는데 그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평등했지만 사회 복귀 후에는 빈부 격차가 나고, 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착한 영화입니다. 잘 만들어졌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사회적 리얼리즘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리얼리즘을 말할 때 '사회주의적'이 아니고 '사회적'이라고 구별해야 할 텐데요.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 비판적인 리얼리즘 영화는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면 안돼요. '사회적' 혹은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스탈린 체제 아래에서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야 하고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감독을 꼽는다면 알프레드 히치콕, 윌리엄 와일러, 프레

스톤 스터지스, 오손 웰스, 마이클 커티즈, 존 휴스턴 등이 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레베카Rebecca>가 1940년 영화인데요, <레베카> 이후 헐리우드로 본격 입성하면서 미스터리 서스펜스 장르의 대가로서 많은 작품들을 했죠. <싸이코>라든지, <새>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 60년대, 70년대 까지 활동을 하다가 80년대 초에 타계를 했는데, 히치콕 감독은 굉장히 대중적 성공을 거뒀던 감독 중의 하나죠. 현대 감독으로 얘기를 하면 스필버그와 루카스에 버금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버금가는 대중적인 감독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무성영화 시기부터 활동을 했고, 처음에는 서부극으로 출발을 했지만 대단히 문학적이고 연극적인 드라마에 기초한 작품들을 많이 만든 감독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다른 얘기죠. 우리는 항상 윌리엄 와일러 감독을 떠올릴 때 <벤허>라는 대작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윌리엄 와일러가 <벤허>같은 스펙터클 영화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작품들 <편지>, <작은 여우들>, <미니버 부인>, <우리 생애 최고의 해> ... 이런 영화들이 오히려 걸작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을 하나 더 추가 한다면 <콜렉터>까지.. 이런 연극에 기초한 이런 영화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락성이 뛰어나고 드라마가 탄탄한 그런 영화들이죠. <벤허>는 이런 영화에 비하면 굉장히 스펙타클 영화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격이 다른 영화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좀 다른 측면이죠.

그리고 프레스톤 스터지스 감독은 코미디를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죠. <레이디 이브Lady Eve>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팜 비치 스토리The Parm Beach Story>도 있고요. 미국의 풍속도를 희극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희극도 대단히 풍자적인 고급 희극입니다.

그리고 오손 웰스 감독은 거의 미국영화사에서 신화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전세계에서도 천재 감독으로 알려진 감독입니다. 26살에 <시민 케인>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1941년도 작품이고 이 작품은 오손 웰스의 데뷔작인 동시에 대표작이죠. <위대한 엠버슨가>, <상하이에서 온 여인> 등이 있고,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소재로 다수의 영화를 만들었죠. <맥베드>라든지 <오델로>라든지.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웰스는 작가 주의적이고 예술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대중 영화적이고 오락영화적인 성향이 강한 헐리우드에서 오손 웰스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그런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헐리우드의 이단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대단히 영화기법의 실험주의자로서는 탁월한 명성을 얻었지만 대중적으로는 실패하고 사업적으로도 아주 불운한 일생을 보낸 그런 대표적인 천재감독이 바로 오손웰스입니다. 40년대에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존 휴스턴 감독은 <말타의 매>라든지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이라든지, <아스팔트 정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시스템의 귀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감상적 리얼리즘과 헤밍웨이의 문학에서나 볼 법한 행동주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으로, 이후 미국영화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감독이죠.

헐리우드 매카시즘의 열풍

이때, 1940년대에 미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의회 반미위원회 활동'과 '블랙리스트 사건' 입니다. 이것은 1947년도 의회 반미위원회가 활동하면서 1950년대 매카시즘 선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카시 상원의원이 반미활동 조사위원회를 조직해서 헐리우드 내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재판에 올리고 심문하고 연행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미국의 냉전 시대의 산물인데요. 헐리우드에서 국가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역적인 10명의 인물 리스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협조적이었던 많은 연루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후 곧 시정이 됐으나 1950년대까지도 미국 영화사에 아주 뚜렷하게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는, 최악의 악몽으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미국이 가장 치욕스러운 악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남전, 그리고 월남전에서의 패배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매카시즘이에요. 매카시즘은 특히 헐리우드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자는 구호 아래 무자비하게 많은 영화인들을 연행하고 불법 심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므로 헐리우드가 한동안 마비가 됐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 험프리 보가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영화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아주 불행한 역사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죠.

<시민케인>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당시의 천재 감독으로 불렸던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을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를 갖도록 하죠. 이 영화는 오손 웰스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작품이고, 동시에 다재다능한 오손 웰스의 예술적 성취도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로즈버드"라는 말을 남기고 타계한 거부, 케인이라는 재벌 거부의 "로즈버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뒷조사를 하는 한 기자의 마치 탐정 추리극과 같은 기법으로 구성된 멜로드라마 입니다. 그 "로즈버드"라는 말에 관계 된 많은 여자들, 동료, 친구들을 만나는 탐문 수사 과정에서 "로즈버드"가 알고 보니 대부호 케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 곁을 떠나기 전에, 양부모 밑으로 들어가면서 두고 왔던 썰매에 찍혀진 이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영화가 탐정 수사극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이고 그것이 대단히 사회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멜로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부호라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어린 시절의 추억은 바로 어머니의 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모성을 갈구하는 외롭고 나약한 한 인물을 통해서 거대한 자본주의에 싸인 이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허망한 인간성, 외로움, 고독, 소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고 특히 이 영화가 형식적인 면에서 독일 표현주의와 소비에트 몽타주, 그리피스의 장

편 극영화의 내러티브 법칙... 온갖 기법들을 전부 모아 놓은 것 같은, 영화 기법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으로 군림하면서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모든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이 영화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이 영화는 당대에는 굉장히 평가 받지 못 했지만 50년대를 지나 60년대를 지나면서 대단히 많은 평론가들에 의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거의 30여 년간은 '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 바로 이 <시민 케인>입니다.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명장면들로 그의 대표작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명장면들을 꼽아 보면, 특히 표현주의적인 조명을 사용한 도서관 장면이라든가, 또는 이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롱 테이크 기법과 딥 포커스 기법, 전경과 후경을 일치시키는 촬영법 , 수잔의 자실 미수 장면이라든가, 신문사에 직원들이 쭉 도열해 있는 장면이라든가, 어린 케인이 방 안에 있는 어머니와 후견인이 대화하는 장면에 끼어있고 창문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딥 포커스 장면이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대단히 탁월한 형식적 실험으로서 많은 영화에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